

한센병 환자 위해 헌신한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

중외학술복지재단, 성천상 선정
“음지에서 의료봉사활동으로 귀감”

36년 전, 한센병 환자가 모여 있는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 스텐아홉 살 청년이 공중보건의로 부임했다. 서울대 의대를 갓 마친 의사 김인권(65·사진)은 남들이 꺼리는 이곳 근무를 자원했다. 인턴 과정때 6개월간 소록도를 다녀간 경험이 바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3년간의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친 뒤 의사로서 본격적인 진로를 결정할 때가 되자 그는 이번엔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애양병원을 선택했다. 여수애양병원은 외국인 선교사가 1909년 지금의 광주광역시에 처음 지은 뒤 국내 최초의 한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20년대 중반부터 여수 시골마



을로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했고 1967년 현대식 병원으로 재탄생했다.

의사 김인권에게는 부나 명예보다 한센병 환자의 치료가 시급한 일이었다. 그는 83년 5월 여수애양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부임한 뒤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 치료에 전념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예방 백신 개발로 소아마비 환자의 수가 감소했을 땐 진료 방향도 함께 바꿨다. 허리와 고관절,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늘자 인공관절수술을 통해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줬다. 현재 여수애양병원은 인공관절 수술의 메카로 불릴 만큼 전국 최고 의료 수준을 자랑한다. 인공관절을 포함한 정형외과 수술 건수가 연간 약 4000건에 달한다. 이 병원은 김인권 명예원장의 지시에 따라 “오는 환자는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센병 환자과 지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이 제4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성천상은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이 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의료인을 선정해주는 상이다. 상금은 1억원. 시상식은 다음 달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한센인 돌보다 이젠 노인 무릎 치료”

제4회 성천賞 김인권 명예원장
1980년부터... 수술비는 절반만
“찾아오는 환자는 무조건 치료”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젊음을 바치겠다.”

젊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1980년 아내와 생후 60일 된 딸을 데리고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 공중보건의로 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6개월간 이곳에서 인턴을 한 경험 이 그를 여기로 이끌었다. 주위에서는 긴 의사 생활에서 3년 정도 봉사생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날 이후 오로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바쳐졌다.

11일 제4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인권(65)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의 이야기다. 이 상은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JW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려 2012년 제정했다.

김 명예원장은 공중보건의를 마칠 무렵 “한센병 환자과 소아마비 장애인들의 선천성 골격 기형 치료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사회복지법인 여수애양병원이었다. 선교사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것



중외학술복지재단

이 계기가 돼 국내 최초의 한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 원장은 1983년 여수애양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부임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 치료에 집중하다가 백신 보급으로 환자가 줄어들자 1990년대에 인공관절수술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허리와 고관절,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는 찾아오는 환자는 무조건 치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술비는 다른 병원의 절반만 받았다. 이 때문에 병원 접수창구를 열기 전부터 수십 명이 대기할 정도로 환자가 몰렸다. 김 명예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을 조금 버리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길을 택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매일 20건의 수술을 하고 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다음 달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천상 시상식을 연다.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반백년 6만여명 돌본 '고아들의 의사'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병원 명예원장 '성천상' 수상

JW중외그룹은 50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고아를 보살펴 온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82·사진)을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천상은 고이기석 중외그룹 창업자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다.

1958년 연세대 의과대를 졸업한 조 명예원장은 1962년부터 15년간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으



로 자리를 옮겨 6만여 명의 입양 예정 고아들의 건강을 챙겼다. 그는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 예방접종을 하는 등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수상 소식을 전달받은 조 명예원장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느새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월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50년간 6만명 돌본 '입양아의 주치의'



'성천賞' 받는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치료하고 수술해야 하는데 1960~70년대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었다. 젊은 여의사는 미국·독일·노르웨이에서 의료 기부를 받겠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다. 해외 기부자들에게 얼마나 매달렸는지 '국제거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래도 아이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의 사망진단서를 하루에도 몇 장씩 써야 하던 시절이다.

'한국 입양아의 주치의'로 불리는 조병국(82·사진)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이 13일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이 주는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명예원장은 50여년 동안 새 부모를 찾아가는 입양아 6만여명을 치료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려 2013년 제정됐다.

195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조병국은 1962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부속원에서 입양아들의 치료에 헌신했다. 1993년 정년 퇴임했지만 후임자들이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자 다시 돌아와 2008년까지 15년 동안 '전(前)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그는 "세상을 뜬 아이에게 제대로 된 수의(壽衣)도 입히지 못하고 참호지를 대충 잘라 덮어 놓던 시절도 있었다"며 "외국에 하도 원조를 많이 요청하다 보니 정부로부터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고 했다.

지원 요청 찾아 '국제거지' 별명 홀트 17년 근무 후 퇴임하고도 후임자들 못 버티자 돌아와 15년 "어엿하게 큰 아이들 보면 뿌듯"

다. 의대 동창인 남편은 그를 적극 도왔다. 아이들이 동전이나 단추를 삼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남편이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런 조 명예원장도 해외 입양을 '아기 수출'이라며 무조건 비난할 때는 힘이 빠졌다. "집 없고 병든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부모와 가정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국내에 자원하는 부모가 없으니 해외로 눈을 돌렸을 뿐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입양 서류에

'~에 버려졌음' 대신 '~에서 발견됐음'이라고 기록하던 그다.

그래도 아이들은 큰 기쁨을 안겨줬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 뇌성마비 소년은 소아 재활의학 전문의가 돼 국제학회에서 그를 찾아왔다. 나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아이는 미국에서 의사(義手) 사업을 하는 양부모를 만나 컴퓨터 전문가로 됐다. 척수 기형으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것이 라던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 밴드의 리더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양부모의 도움도 컸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노력해서 알꼴을 연 것"이라며 "지금껏 내가 한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서 고맙다"고 했다.

조 명예원장은 팔손 고령인 지금도 홀트 입산복지타운에서 장애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장애가 심해 입양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마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도 돌보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자인 해리 홀트의 딸이다.

"할머니와 같이 살아보셨어요? 할머니가 손자들 돌보는 생활 그대로예요. 아이들 이부자리 정리하고, 아프면 봐주고 그렇게 살아요."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다음 달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천상 시상식을 갖는다.

이영만 과학전문기자

한센인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 만든 소록도 천사

(국립소록도병원 치과의)

오동찬씨, JW중외그룹 성천상

오동찬(46·사진)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치과 전문의)은 조선대 치과대학 졸업후 1995년 공중보건으로 국립소록도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말기암 환자였던 어머니의 만류에도 “1년만 봉사하고 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약속했던 1년이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 20년간 1600여 명의 한센인을 치료했다.

그는 특히 한센병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직접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오 부장은 “슈바이처 같은 의사를 꿈꾸며 치과대학에 진학했었다”며 “아랫입술이 처져 음식을 씹지 못하는 환자들을 그냥 두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씹지 못하고, 양치질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며 입술 성형수술을 연구했다. 한

센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라 참고할 교과서도 연구논문도 없었다. 홀로 공부해 국내 최초로 입술 성형수술 방법을 개발했고, 400여 명의 한센인에게 입술을 되찾아 줬다.

오 부장은 2005년부터는 해외의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있다.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캄보디아·몽골·필리핀 등 한센병 환자가 많은 국가를 찾아 봉사 활동을 펼치는 그는 “한센병 환자들에게서 내가 배우고, 받은 게 많다”고 말했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오 부장을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기석 사장의 뜻을 기려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다. 상금은 1억원이며, 시상식은 다음 달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박수현 기자

africasun@joongang.co.kr



한국경제

‘제2회 성천상’ 20여년 한센병 진료 오동찬 부장

(국립소록도병원)

중외학술복지재단 선정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은 14일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46·사진)을 선정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는 상이다.

오 부장은 20여년 동안 국립소록도병원에

서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술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994년 조선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오 부장은 이듬해 국립소록도병원에 공중보건의를 자임하면서 한센인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의료진마저 한센인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그는 일생을 한센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뒤 줄곧 소록도를 지켜오고 있다.

한센병 후유증으로 아랫입술이 처져 음식



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아랫입술재건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 400여명 환자의 입술 성형수술을 시술하는 등 지금까지 1600여명의 한센인을 돌봤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오는 8월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성천상 시상식’을 연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김수환 추기경 ‘판자촌 가보라’ 말씀에 의료봉사 시작했죠”

제1회 ‘성천상’ 수상한 벨기에 출신 배현정 全眞淸의원 원장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지나가던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어 인사했고, “뭘 살이냐?”라는 물음에 꼬마아이는 방긋 웃었다. 파란 눈에 흰 피부를 가진 외국인은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인사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전진상(全眞淸) 의원’을 운영하며 영세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벨기에 출신 배현정(67·분명 마리 헬렌 브라시르) 원장이다. “이 동네에 백인 외국인이 저 한 명이니 다들 잘 알아봐요. 제가 ‘개띠(1946년생)’니까 뭐, 동네 할머니죠.”

배 원장이 JW중외그룹이 제정한 ‘성천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천상’은 2011년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JW중외학술복지재단이 헌신적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귀감이 된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상이다. 재단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위해 자신보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38년간 의료봉사 활동을 한 배 원장을 제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상금은 1억원이다. 그는 “외국인인 내가 제1회 수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벨기에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국제가톨릭청년회를 통해 한국에 온 배 원장은 1975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조언으로 당시 판자촌이던 금천구 시흥동에 의료복지기관인 ‘전진상 의원’을 설립했다. ‘전진상’은 온전한 자아 봉헌(全), 참다운 사람(眞), 끊임없는 기쁨(常)이라는 뜻. “김수환 추기경이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서울 번두리 판자촌에 살고 있다’며 갈 만한 곳을 뽑아주셨어요. 판자촌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이 가장 도움이 시급한 것 같아서 왔지요.”

1975년 2월, 슬레이트 지붕의 전진상 의원이 설립됐다. 판자촌에 정착한 이들은 개인 직후 먹을 쌀이 없어 쌀집에서 외상으로 쌀을 꾸고 겨우 마린한 만원짜리 지폐를 키우던 게까 절반가량 먹어치워 개통을 해

가난한 이들 38년간 진료하며 39만명에게 의료혜택 베풀어

“환자, 의사 얼굴만 봐도 ‘날 포기한 게 아니구나’ 안심 내가 주1회 왕진 가는 이유죠

외국인? 그냥 난 동네 할머니”

처보기도 했다.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이 외상을 달라고 하니 쌀집 주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개통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해 결국 남아 있는 지폐 절반을 들고 한국은행에 찾아가 5000원을 돌려받았어요. 처음 7년간은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2번씩 식수를 받아 썼고, 푸세식 화장실은 나무판이 부서질까 봐 무서웠죠. 쥐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하하.”

1981년 중앙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배 원장은 1985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주말에만 방문하는 의사만으로 결핵 환자와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의 대를 가야겠다고 하다가 제가 가게 된



배현정 원장은 “돈이 있다고 괴롭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환자를 받는다”면서도 “물론, 우리의 VIP는 영세민”이라며 웃었다.

것”이라며 “학비는 서울국제여성협의회(SIWA)에서, 약은 독일에서 약국이 운영하는 아버지께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1990년에는 현재의 벽돌 건물을 세워 든든한 의원의 모습을 갖췄다. 배 원장은 한 달에 외래환자 900여명을 진료하고, 38년 동안 39만명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었다.

전진상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전에 사회사업가를 먼저 만나

가게도를 그리고 가정환경 상담을 하도록 한다. 허리가 아프다면 온 환자가 정신병을 앓는 아들을 둔 엄마라면 그 아들도 함께 등록시켜 치료받게 하는 식이다. “그 환자의 허리를 고쳐주는 것뿐 아니라, 아들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거죠.” 전진상 의원은 ‘의료 사업’이 아닌 ‘의료 사회사업’을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상주 의사 2

명을 포함한 직원 24명 외에도 대학 병원 전문의 등 50명에 달하는 자문 의가 있다. 내과·산부인과 등 13개 과목을 진료하고 15년 전부터는 가정 호스피스를, 2008년부터는 입주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배 원장이 직접 왕진을 나간다. 지난 18일에도 중풍·심장병·투석리병을 앓는 환자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루에 10명 이상 진료할 수 없는 왕진이 비현실적으로 보여졌지만 환자들은 의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나를 포기한 게 아니구나’라고 안심한다”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환자의 병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직접 왕진을 간다”고 말했다.

판자촌이 주택으로 바뀌고, 물과 전기가 끊길 걱정도 없지만 배 원장은 “지금, 마음이 더 안 좋다”며 “그때는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병 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몇 개월을 지켜봐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허탈하죠. 집에 들어 가면 맥주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환자를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산다는 그다. “오늘은 감사하며 꽃을 들고 오신 분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고추장과 된장을 받았어요. 갑자기 고무마를 들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벨 수 있는 만큼 돈을 내도 돈이 없다고 치료를 중단하지 않아요. 환자들은 제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신답니다.” 이미지 기자

한국일보

판자촌에 무료진료소 40년 ‘시흥동 슈바이처’

‘성천상’ 1회 수상자 벨기에 출신 배현정 원장

시흥에 ‘전진상’ 세워 인술 베풀며 장학금도

제약회사인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이 제정한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벨기에 출신의 배현정(분명 마리 헬렌 브라시르·67) 전진상의원 원장이 선정됐다고 재단 측이 15일 발표했다.

재단 측은 “배 원장이 고국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서 40여년간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소외 계층에게 인술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배 원

장은 1972년 봉사단체인 국제가톨릭청년회 단원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게 지금껏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게 된 계기가 됐다.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75년 서울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진료소인 ‘전진상(全眞淸) 가정복지센터’를 세우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간호사로서 진료소 운영에 한계를 느낀 배 원장은 81년 국내 의대에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진료와 호스피스 활동으로 형편이 어려워 39만여명에게 인술을 베풀었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성나(가천의과대학 명예총장)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배 원장이 자신

의 평생을 바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본 점이 성천 이기적 사장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다음달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천상 시상식을 열어 배 원장에게 상패와 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성천 이기적 사장의 선공후사 정신을 기려 사회적인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했다. 성천은 1945년 조선중외제약소(현 JW중외제약)를 창업한 뒤 국민 건강에 필요한 약품이라면 이윤이 박하더라도 생산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치료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진 1세대 제약인이다. 연합뉴스



‘시흥동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된 그는 “의료 봉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 제공